

## 사랑할 때는 더하기만 하라.

In the arithmetic of love, one plus one equals everything, and two minus one equals nothing.

(Mignon McLaughlin)

사랑의 산술에서는 일 더하기 일(1+1)은 모든 것이고, 이 빼기 일(2-1)은 아무것도 아니다. (미뇽 맥로플린)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사랑은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랑과 소중한지 않은 사랑을 구분할 수 있나요?

당신의 사랑의 무게는 얼마나 되나요?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이런 질문에 대하여 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고요? 사랑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다양한 이름으로 구분합니다. 신과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형제간의 사랑 등... 그러나 우리 중 누구도 사랑의 중요도 또는 무게를 따져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미국의 작가 맥래플린(McLaughlin)은 사랑의 계산 식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의 계산에서, 모든 것(everything) 또는 아무것도 아닌 것(nothing)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랑은 더하게 되면 모든 것이 되고, 빼기를 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 사이에는 오직 풍성함이 존재합니다. 사랑 자체가 모든 것을 포용하니까요. 그러나 사랑하던 사람 사이에서 사랑이 빠지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사랑이 존재하지 않던 관계의 사람 관계보다 훨씬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을 지혜롭게 그리고 마음이 풍요롭게 사는 방법은 사랑할 때는 더하기만 하는 것이 어떨까요?